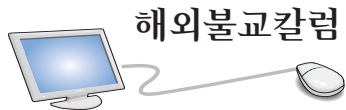


‘야단법석’의 어원은 佛家



해외불교칼럼

‘야단법석’에 대한 ‘불교대사전’의 해석은 대개 이렇다. 야단(野壇)은 ‘야외에 세운 단’, 그리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펼치는 자리’란 뜻이니, 곧 ‘야외에 단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풀이된다. 요즘 같은 노천법회나 야외법회쯤 되겠다. 석가세존께서 친히 벌이신 야단법석 가운데 대중이 가장 많이 모인 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했을 때라 전해진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아무래도 시끄럽게 어수선해진다. 경황이 없고 들뜬 그런 축제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일컫던 말이 이젠 일상 언어로 굳혀졌다.

삼국시대 이래 고려왕조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 연등회와 팔관회는 오늘날 초파일 행사보다 훨씬 성대한 야단법석이었다. 보다 야당 행사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속속과 불교 의례가 맺어지고 여러 토속신앙들에 대한 제사와 가무도 곁들여졌다. 이들은 또한 가을의 풍수를 천신에 감사하고, 전사한 장병들의 위령제도 겸하며 지신과 수신을 두루 섬겼던 전국적인 종교행사이자 종합적인 문화기반이었다.

통 시대 중국의 해상활동 관련 문헌과 해양 무역의 주무 부서이던 사부사(市舶司)가 남긴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등부 해안선을 따라 명주와 천주 일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아랍계 무슬림 상인들의 대 고려 무역의 흔적이 적잖게 남아있다. 그들에게 고려의 연등회와 팔관회는 가장 큰 ‘장사 대목’이었다. 그들은 축제 특수품인 초, 향료, 종이, 물론, 고가의 사치품인 비단, 상아, 코뿔소 코, 공작의 깃



흔히 쓰는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진은 대중법회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털, 심지어 영무새 등 애완동물까지 팔고자 고려 땅으로 몰려들었다. 또 그들이 남긴 항해일지 등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가 바로 고려와의 교역 때에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계절풍과 해류를 타고 한반도의 서남 해안에 진입한 그들의 무역선단은 대체로 고군산열도 근해부터 고려 함대의 호송을 받으며 예성강 입구부터는 간혹 봉화신호의 야간 항해유도까지 받으며 백란도에 도착한다. 그리고 개경 인근의 객관에 수개월씩 머물며 큰 장사판을 벌였다. 불가의 야단법석이 국제 경제적 야단법석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른 한편, 무슬림들의 신앙적 의무이자 필생 소원인 성지순례 핫즈(hajj) 역시 전 세계의 이슬람교도들이 모여드는 야단법석이다. 핫즈의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무슬림들의 영성적인 귀착점인 동시에,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끌고 온 엄청난 지식과 정보, 문화의 물자들의 교류 및 교역 장소였다.

그래서 지금도 ‘메카’는 중심지 또는 집결지, 그리고 무슬림들이 펼친 ‘바자’는 간이 장터라는 뜻의 보통명사로 각각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듯 야단법석은 본디 불가에서 유래했으며 특과점 아이템은 아니다. 오늘날 여타 종교들도 운동장 등에서 춤추고 노래도 하는 육신양집회를 펼치는데, 이는 자신들의 믿음과 친목을 다지는 흥겨운 야단법석이다. 머잖아 날씨가 풀리면, 여기저기서 대규모 종교 집회들이 벌어질 것이다. 다만 그 야단법석의 신바람이 지나쳐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라 울부짖는 축성들의 아부귀환 동영상 시리지가 또 다시 지구촌을 떠돌지 않길 바란다. 비록 일부러지만 우리 한민족 형제자매들이 온 세계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참조: 宣和奉使高麗圖冊 Islam in China(BBC), Crazy Korean Christian Series 1-6(YouTube.com), 기타
번안: 성휴스님

명상훈련 도입한 농구코트의 대선사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필잭슨



“먼저 내 마음을 맑고 가지런히 하라.” 미국의 NBA 프로농구 경기에서 9회 타이틀 쟁취라는 믿지 못할 기록을 남긴 명 코치이자, 또한 농구코트의 대선사(Great Zen Master)라 불리는 필 잭슨은 이와 같이 말을 잇는다.

“어디로 나아갈 건지 미리 방향을 찾아 헤메지 마라. 먼저 내 마음을 맑고 가지런히 지니라. 그러면 나아갈 방향은 내게 스스로 찾아온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목표라는 욕망을 꼭꼭 채워 넣고 비틀기보다는 오히려 집착을 훌훌 털어내고 마음을 텅 비우라는 얘기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파죽지세의 시가고 불스 팀을 키워낸 필 잭슨은 불교의 참선을 프로농구에 접목시킨 불자로서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기관리, 조직행태 등 고단위 경영기법과 집단심리 등 관련학계에서 특별 케이스스터디의 대상이기도 하다.

성장배경부터 남들과 크게 다른 그는 1945년 ‘하나님의 성화’라는 개신교의 목회자로 함께 일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댄스도 하지 말라, 영화관도 가지 말라, 텔레비전도 보지 말라는 등 극히 통제적이며 급속적인 유년기 교육을 거친 그는 고교 때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고, 댄스만 건 대학에 들어가서야 처음 해볼 수 있었다. 그 부모님의 가정교육은 시대착오적이라 할만치 폐쇄적이었다. 하지만 아들 삼형제는 고행수도승이나 특수부대원처럼 그 지독한 극기 훈련을 잘 극복하고 견뎌냈다.

그들은 자칫 과잉보호로 밀가루반죽처럼 흐느적될 나이에 엄격한 부모로부터 할 짓과 안할 짓(do's & do-not's)을 가리는 금기의 기준, 그리고 무서운 자기절제의 능력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철같이 강한 품성과 끝은 인격을 다져낸 것이다. 역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들은 속 마칠 듯 담담한 성장환경을 엄청난 양의 독서와 각종 스포츠로써 해설했다. 아마도 그

의 부모님은 그들이 억눌린 에너지를 폭발시킬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분출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아주 현명하게 서서히 이끌어준 듯하다.

그리하여 책벌레에 다 만능 스포츠맨을 겸한 필 잭슨은 고교 때부터 특히 농구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이제 노스다코다대학에 스카우트가 된 이후 멋진 현역선수시절을 거쳐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수석코치로 이미 NBA 타이틀 연속3회 쟁취라는 또 다른 신호를 만들어 간다. 참선을 고즈넉한 선원에서 흥분은 도가니인 프로농구경기장으로 옮겨놓는 장본인이 바로 필 잭슨이다. 그는 언뜻처럼 잔잔한 불교철학을 불꽃 튀기는 삶의 현장에 접목했으며, 또한 참선을 조직 관리에 응용하는데 있어 일대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불교적 리더십(Buddhist Leadership)의 선구자라 일컫기도 한다. 서구인들 중 흔히 않은 완벽한 동양통인 그는 노자의 경제철학에서 일반경영과 인력관리의 이론을 익혔다.

또한 그는 손자의 병법에서 전략과 권모술수를 제대로 배웠으며 제자백가의 답론에도 정통한 학구파다. 게다가 그는 흔히 인디언이라 잘못 부르는 미국토착민의 신앙과 철학에도 전문가적 식견을 지녔다. 그 모두가 최후를 마다않고 가르치신 부모님의 가없는 은덕이다. 그렇듯 너른 다양성(width)과 심오함(depth)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분들의 엄정한 가정교육과 인성관리, 특히 체계적인 독서지도에 의해 일찍부터 그 ‘기반’이 철저히 다져진 것이다.

이처럼 이미 뛰어난 인간과학의 대가인 필 잭슨이 불교를 통해 새로이 깨우친 건 무엇이며, 또 서구인들에게 참선이란 무엇일까? 성휴스님

스리마하보디 원승이 출몰 비상

23년 전 스리랑카의 타밀 반군의 무차별 공격에도 총알 한발 맞지 않고 무사했던 불교의 성수(聖樹인) 스리마하보디가 이젠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2500여 년 전 붓다가 그 아래서 성도한 보리수의 묘목을 스리랑카의 고대 도읍지에 이식, 2300년 동안 국민적 불심과 국가정체성의 상징으로 삼아온 성수 스리마하보디에 최근 엄청난 규모로 증가한 원승이 무리가 몰려들어 급기야 승려들과 경비용역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 원승이들에게 치명상

을 가하는 현대장비를 피하고 종을 치거나 폭죽 등을 터뜨리는 퇴치방식을 쓰는데, 그것이 이 불청객들을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무도 확실하지 못한다.

출처: AFP

미호지 의문사 안전사고로 종결

영국 버킹엄셔 배심원은 2006년 8월 21일 밀턴 케인즈에 소재한 미호지 불교사원에 발생한 의문사사건에 대한 심의종결을 2월 22일 발표, 사망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임을 공식 확인했다.

출처: BBC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Tomorrow is not real. The only reality is now

내일은 헛것일 뿐, 지금만이 현실입니다

An unfortunate warrior was captured by his enemies and thrown into prison. That night he was unable to sleep because he feared that the next day he would be interrogated, tortured, and executed. Then the words of his old meditation master came to him, "Tomorrow is not real. It is an illusion. The only reality is now." Pondering these words, the warrior became peaceful and fell asleep, "Yes, Nirvana is here and now."

어느 불운한 무사가 적의 포로로 잡혀 감옥에 처박혔다. 그날 밤 그는 이틀이넘 심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될 거란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언젠가 옛 선사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내일은 헛것이자 눈속임일 뿐, 바로 지금만이 현실이다."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던 그는 어느덧 마음 편히 하고 푹 잠이 들었다. "그래, 바로 이 순간여기가 니르바나인 것을..." 번안: 성휴스님 / 그림: 이태수

[각성큰스님 법을 펴시다!!]

불교강원과정 3기 수강생 모집

부처님법을 만남은 삼천년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꽃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듯이 경허, 한암, 탄허 큰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각성큰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막힘없고 완벽하게 강해하신 한국불교전통육백년에 핀 동양학의 대선지식이십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큰스님의 법보시를 받아 불법의 종지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과목** : 강원 사교과정 중심 (농업경, 대승기신론, 유식론, 선가귀감, 반야심경 약소) ※ 현재 선가귀감, 반야심경 약소, 유식론 강의 진행중
- 교수진** : • 원조 각성 큰스님 화엄사(부산) 회주 • 서대원 박사(북경대 철학박사)
- 각성 큰스님 역량** : •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등 불교전문강원 강주역임 • 동국역강원 역경위원 • 강해 저서 <능가경> <능엄경> <유식론> <구사론> <대도직지> <대승기신론> 등 다수
- 개강일시** : 2008년 3월 15일(토) 오후 3시
-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 접수처** : 보명선원 TEL. 02)2273-8484 / FAX 02)2276-0108 011-757-9847 / 011-9021-1680

[재가불자들의 탁마수행도량]

보명선원

서울 중로구 종로5가 182-7 대화빌딩 5층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5번출구 10M전방 첫 우측골목)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에 돌풍을 일으킨 경역과 총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사 도대어 대공개!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반상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전국대형서점, 불교서적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